"DJ 큰 뜻 이을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엄수된 23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 홀에 수 많은 시민들이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유품과 업적이 담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침만 해도 타미플루 처방

대유행 땐 부족사태 … 접수·진료·투약 한 곳 처리 '전용 병동' 시급

광주·전남 확진 환자 79명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가벼운 증세만 보여도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사람들이 늘어 자칫 타미플루 부족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접수에서 진료, 투약까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신종플루 전용 병동 개설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이날 현재 모두 79명(광주 11명, 전남 68명)으로 지난 22일 68명에 비해 11명이 증가했다. 또한 현재 16명의 추정환자에 대한 확진 여부를 조사 중이고, 24일부터는 일선 학교의 개학이 시작돼 조만간 감염환자가 100명에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특히 그동안 확진 환자로 판명될 경우에만 타미플루를 투약했으나, 21일부터는 거점병원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하는 등 조기 투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광주 8곳, 전남 28곳의 거점약국에서는 보건소로부터 타미플루 100~200명 분을 공급받아 22일부터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아닌 발열이나 기침 증세의 유사환자들에게도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처방되고 있어 자칫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 바닥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광주의 한 거점약국 관계자는 "22일 한 명의 환자가 타미플루 처방전을 가져와 타미플루를 건넸다"며 "80대 고령자가 기침과 발열이 있다고 해 처방전대로 했으며, 그 뒤로는 환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확보한 타미플루는 모두 2만1천660명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분량은 이 지역 전체 인구의 5~7%에 그치는 것으로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환자 추세로 비춰 볼 때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지역 배분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확보량을 크게 늘리거나 복제약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충분한 치료약 확보가 힘들다"고 말했다.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은 접수창구에서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 지급, 사전 연락 시간약속 후 방문, 입구에서 고막체온계 발열 확인, 급성호흡기질환자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진료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기독병원이 결핵환자 전용 병동을 운영하듯 광주·전남에서도 확진 환자나 중증 환자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형병원의 한 개 병동 또는 병원 전체를 신종플루 전용 병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1일 타미플루의 남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WHO는 건강한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려도 타미플루가 필요 없다면서 5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심장병 · 당뇨병 환자 등처럼 합병증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타미플루가 처방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희종·최권일 기자 chae@

교수 1인당 SCI 논문

〈과학기술논문색인〉

광주과기원 국내 1위

전남대 총 논문 수 국내 대학 중 10위

전남대가 국내 대학들 가운데 과학기술논문색인(SCI)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에서 10위를 차지했다. 광주과기원은 26위, 조선대는 27위에 올랐다.

특히 광주과기원은 교수 1인당 논문 수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2008년 SCI 논문 실적 결과'에 따르면 SCI 논문 수의 경우 전남대는 1천277편, 광주과기원 567편, 조선대 560편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고려·성균관·한양대가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교수 1인당 논문 수에서는 광주과기원(GIST)이 5.24편으로 가장 높았으며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성균관대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북대는 2007년 599편이던 논문수가 2008년 835편으로 39.4% 증가,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지난 해 SCI 논문 수는 총 3만5천500여편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3.28회로 세계 30위에 그쳤지만 전년도보다는 한 단계 상승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권익위 '이동 신문고'

26~28일 해남·영암·나주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6일 해남군을 시작으로 27일 영암, 28일 나주시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 등이 어려운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전문가 등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는 제도다. /최경호기자 choice@

초·중·고생 13% 정서·행동에 문제

교과부 "정밀검진 필요"

우리나라 초 · 중 · 고생의 13% 가량은 정서나 행동에 문제가 있어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내놓은 학생 정신건강 검진 시범운영 사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5개 초 · 중 · 고생 7만4천38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한 결과 12.9%(9천588명)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 불안, 자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 중독, 성행동 장애, 섭식장애 등 정서나 행동에 문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학생을 학년별로 보면 초등 1학년이 766명(7.4%), 초등 4학년 1천405명(11.3%), 중 1학년 3천258명(13.5%), 고 1학년 4천159명(15.1%)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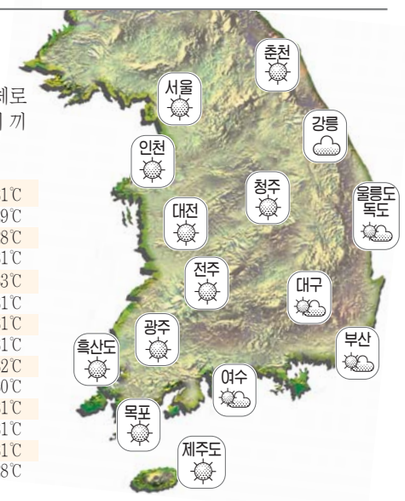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9분 해짐 19시 10분 달뜸 10시 04분 달짐 21시 08분

선선한 밤바람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구름 조금	21/31℃
목 포	구름 조금	21/29℃
여 수	맑은 뒤 흐림	23/28℃
완 도	맑은 뒤 흐림	21/31℃
구 례	구름 조금	18/33℃
해 남	맑은 뒤 흐림	21/31℃
장 흥	맑은 뒤 흐림	20/31℃
고 흥	맑은 뒤 흐림	19/31℃
순 천	구름 조금	21/32℃
영 광	구름 조금	19/30℃
진 도	맑은 뒤 흐림	21/31℃
전 주	구름 조금	19/31℃
남 원	구름 조금	18/31℃
흑산도	구름 조금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4:39 17:09	09:44 22:03
여수	11:33 23:33	05:06 17:2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날 씨						
최저/최고	21/30	23/29	24/28	23/30	22/30	20/30

무더위 계속

광주·전남 27일 비

8월 넷째 주 광주·전남지역은 맑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다가 27일 한 차례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7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으며, 그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이 낄 것"이라고 23일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아침최저기온 18~23도, 낮 최고기온 28~30도)과 비슷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밤에는 선선한 날이 이어질 것"이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부터 순천과 곡성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에 발령된 폭염주의보는 이날도 유지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